

유타대, 인천 지역 사회 위한 특별 공연 개최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가 지난 12일 아트센터 인천 다목적홀에서 '유타대 클라리넷 콰이어 특별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미국 유타대 음악대학과 아시아 캠퍼스가 지역 사회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초청 공연이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유타대 구성원, 협력 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과 변주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무대에서는 미국 유타대 학생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콰이어가 다양한 편성의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를 선보였다. 공연은 유타대 음악대학의 브라이언 스프롤 교수와 제이슨 미셜 교수의 지휘 아래 진행됐으며, 로라 그랜티어 클라리넷 콰이어 단장과 김벌리 카운실 음악대학 학장도 함께했다.

특별 게스트로는 경기도민 클라리넷 콰이어와 써서미 합창단이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민 클라리넷 콰이어의 참여는 경기도와 미국 유타주가 오랜 기간 이어온 자매결연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써서미 합창단과의 협연은 유타대



미국 유타대 클라리넷 콰이어와 써서미 합창단이 지난 12일 아트센터 인천 다목적홀에서 합동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아시아 캠퍼스가 인천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레고리 힐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대표는 "이번 공연은 미국 홈 캠퍼스와 아시아 캠퍼스, 그리고 인천 지역 사회가 음악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특별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교육과 예술,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동국대, 실제 종합전형 평가 경험하는 교사 연수 제공

동국대가 2026학년 'Dream Workshop(교사 연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동국대 'Dream Workshop(교사 연수)'은 2026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전국 단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직접 동국대의 서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모의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입학사정관과 함께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을 실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참여자에게는 학생 성장 과정이 학생부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교육과정 운영과 진학 지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한국외대, 'Hufs 대외 역량 강화 위원회 고문단' 출범

지난 15일 한국외대가 'Hufs 대외 역량 강화 위원회 고문단 총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대학 평가 체계 다변화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대외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제화, 펀딩·기금, 홍보·브랜드, 관·산·학 협력, 대외 전략 기획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단과 대학 보직자가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연계해 대학 발전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